

# 나주시 합계출산율 전국 평균 1.5배

### 전남지역 시 단위 지자체 중 1위 지난해 출생아 전년비 7.2% 늘어 임신·출산·돌봄·보육 정책 성과

나주시가 2년 연속 출생아 수 상승 곡선을 나타내는 등 출산 관련 맞춤형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735명, 2024년은 788명으로 각각 직전년도 대비 8.1% (680명), 7.2% (735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한 여성의 가임기간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수치인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전국 평균 0.72%를 웃도는 1.09%로 도내 5개 시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나주시는 2024년 합계출산율도 상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출생 위기 속에서 거둔 이러한 성과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민선 8기 들어 '임신-출산-가사 돌봄-보육'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주시는 2022년 11월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조건 중 '6개월 의무 거주 조건'을 폐지하고 주소지 등록 후 단 하루만 살아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액수도 크게 늘었다. 2023년 7월부터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은 1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양육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고 있다.

출산장려금과 더불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매월 25일 출생기본수당 등으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난임 부부 시술비도 앞서 소득 기준과 횟수 제한



윤병태(오른쪽) 나주시장이 지난해 5월 일곱째 다둥이 출산가정을 방문해 축하 꽃다발을 전하고 있다.

을 폐지한 가운데 올해부터 결혼·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20~49세 모든 남녀 검사 희망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임신 단계부터 지원하는 '임신부 가사 돌봄서비스'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임신부 290명에게 1035건의 가사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둘째아 자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문화가정 등 취약 계층에게 70% 감면 혜택을 주는 전남공공산후조리원 4호점(빛가람종합병원)도 수준 높은 서비스로 산모의 원활한 회복에 이바지하고 있다.

나주시는 올해 25억원을 들여 기존 16실의 산모실을 18실로 늘리고 편의시설 확충, 노후 물품을 교체하는 산후조리원 기능 보강 사업을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임신·출산 지원 시책에 이어 2023년 9월 도내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24시간 시간제 보육실'은 차별화된 보육 서비스로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주말 근무 등 부모의 긴급 사정에 대비해 연중무휴로 생후 6개월부터 미취학 아동을 돌봐주는 보육 서비스다.

가임 인구가 많은 빛가람동을 시작으로 현재 3호점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임신·출산·돌봄·보육 지원 정책을 강화한 결과 출생아 수가 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주로 탈바꿈하고 있다"라며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 제공, 주거·문화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넘어서겠다"라고 강조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장흥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온라인 투표 선정

장흥군은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민투표는 소통24(https://sotong.go.kr)를 통해 장흥군민뿐만 아니라 장흥군 정책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책에 대한 군민 체감도, 적극성, 중요도,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추천사례 1건을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투표 결과는 심사 총점에 40%(직원투표 20%-국민투표 20%)를 반영하고, 추후 적극행정위원회 평가 점수를 합산해 우수공무원을 선정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온라인 투표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확산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적극행정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함평군 청년 1인당 25만원 문화복지카드 지원

### 3월 4일부터 6월30일까지 신청

함평군은 19~28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하는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지원 대상은 2023년 3월 4일 이전부터 전남도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19~28세 청년(1997년~2006년 출생자)이다. 지난해 선정된 청년도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올해 새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농협카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함평군은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된 청년에게 카드 발급과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전년도 선정자는 기존에 발급받은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한다.

단,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는 올해 상향된 문화누리 지원금 14만원을 제외한 차액 1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복지카드는 전남도 내 도서, 영화, 공연, 학원 수강, 여행 등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고려청자로 내 집 꾸며볼까 이젠 청자로 집을 디자인 한다. 27일 제53회 강진청자축제 행사장 강진청자판매장 안에 마련된 쇼룸(showroom)에서 관광객이 전시된 청자를 보며 집의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 강진군 합계출산율 1.6명...2년 연속 전국 2위

### 2023년 대비 0.13명 늘어

강진군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출산·사망 통계(잠정)'에서 합계출산율 1.60명으로 2년 연속 전국 2위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0.75명, 전남 1.03명을 크게 웃도는 기록으로 2023년(1.47명) 대비 0.13명이 늘어난 수치다.

강진군은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과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통해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전국 2위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신계획 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난자 냉동 시술비 및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전관·난관 복원 시술 등을 지원한다.

임산부에게는 ▲임산부 염산제·철분제 지원 ▲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진비 ▲임산부 안전벨트 대어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출산용품 등을 지원한다.

출산가정에는 1년 동안 총 2394만원을 지원한다. 육아수당 72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산후조리원비 154만원으로 한달 평균 200만원 수준이다.

또 생후 1년 이후에도 최대 7세 미만까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수당 4320만원, 부모급여 600만원, 아동수당 840만원으로 총 5760만원을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장성군, 벼 재배 농가에 맞춤형 농자재 공급

### 친환경 농자재 전액·일반 90% 보조

장성군이 벼 재배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 증대를 위해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품목은 맞춤형 비료, 못자리용 상토, 육묘상자 처리제, 액상 규산, 왕우렁이, 개량 물꼬 등 6

종. 이 중 못자리용 상토, 육묘상자 처리제, 액상 규산은 공모로 선정된 고품질 제품을 시중가보다 6~20% 저렴하게 공급한다.

왕우렁이는 1,000㎡(300평)당 1.2kg씩 제공된다. 단가는 kg당 1만원이다.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는 전액, 일반농가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

다. 신청은 오는 3월 14일까지이며, 농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농자재는 3월 중순부터 6월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된다.

군은 이 외에도 지게차 지원, 병해충 공동방제, 고품질 쌀 생산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농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못자리부터 수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농가 소득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화순군, 초·중고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지급

### 1인 20만원...3월 13일부터 신청

화순군은 올해 초·중·고 1학년 입학생과 전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학생들이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화순장학회 기금으로 마련했다. 지원금은 1인당 20만 원씩 화순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3월 4일 기준으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이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준비금 신청 기간은 3월 13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입생은 3월 13일부터 11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3월 13일부터 18일까지를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해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보호자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집중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주소가 화순읍일 경우 군청 대회의실(의화동 4층)에서 신청·접수한다.

신청과 동시에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즉각 입학준비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집중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사업 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